

TV 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40 코노링 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이브의 사랑)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 경제 골든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한영공동제작 디스커버링 코리아 푸드	25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어머님은 내 며느리)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00 TV소셜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20 시사 인사이드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별별가족	40 지구촌 뉴스		0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11 30 채널A 뉴스특보	00 KBS 네트워크 특선 필통 55 바른말 고운말	00 출발드림팀 2(재)	00 주말드라마 (여자를 울려)(재)	00 KBC 생활뉴스 30 한국의 맛(재)
12	00 KBS 뉴스12	10 생생정보쇼 패설	00 MBC 정오뉴스 20 수목미니시리즈 (밤을 걷는 선비)(재)	00 SBS 12 뉴스 50 닥터365
1 50 뉴스특급	00 대조영(재) 55 시청자클럽 우리 사는 세상	10 체인지업 도시탈출(재)	30 앙코르 MBC 다크스페셜 (잠을 지배하라)	00 남도의 보물 100선 20 세상발전 유쾌가
2	00 2015 광주U대회 월드컵 투광주 30 여기는 광주 (다이버 외)	00 KBS 뉴스타임 10 인간극장 스페셜(재) 50 생활의 발견(재)	30 똑똑 키즈스쿨	00 건강 클리닉(재)
3 00 직언직설		45 후토스(재)	00 MBC 뉴스 10 보름달 공방 40 헬로킴즈 싸이결스	00 SBS 뉴스 10 SBS 이슈인 사이드
4 10 쾌도난마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40 TV 유치원 콩다콩	25 일일특별기획 (딱 너같은 딸)(재)	00 내 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30 꾸러기 탐구 생활
5 3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지도그림피	10 코파 반장의 동화수사대 (재) 40 동물의 세계(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하이클론즈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사는세상	00 KBS 뉴스7 30 한국인의 법상	00 KBS 글로벌24 30 2TV 생생정보	10 광주 U대회 특집 생방송 빛날	00 날씨와 생활 05 닥터 365 10 KBC 생방송 투데이
7 10 나는 몸신이다(재)		50 일일 드라마 (오늘부터 사랑해)	15 일일연속극 (위대한 조강지처)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터치 따라부따 20 일일드라마 (들어온 황금복)
8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25 일일연속극 (가죽을 지켜라)	30 반려동물극장(단편) 55 시간을 달리는 TV	55 MBC 일일특별기획 (딱 너같은 딸)	00 SBS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KBS 다크1 (신국부론 중국속으로) 55 국민대통합 우리가	00 수목 드라마 (복면검사)	00 수목미니시리즈 (밤을 걷는 선비)	00 드라마 스페셜 (가면)
11 00 구원의 밤상	00 KBS 뉴스라인 40 산유국의 꿈 동해 고래 프로젝트	10 해피 투게더 (여름 스페셜)	15 경찰청 사람들 2015	15 자기야
12 40 카톡소 X	3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 뮤직	40 광주U대회 기획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MBC 뉴스 24 45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40 나이트 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9:35 이말! 스페이스 정글	14:15 정글북 2	18:00 생방송 특목! 보니하니
05:30 건강한 아침	09:40 달리자어요	14:30 며칠도사	19:00 돌진 슈퍼가정부와 위험한 동네
05:40 만나고 싶습니다(재)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5:00 초능력 특공대	19:30 EBS 뉴스
06:10 세계의 눈(재)	11:0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5:15 두기 탐험대	19:50 청춘 세계대전기
07:00 뽀빠에 친구(재)	11:10 다큐 오늘	15:30 뽀빠에 친구	20:40 다큐 오늘
07:15 책과 평화(재)	11:20 세계테마기행	15:45 부흥! 부흥! 브루미즈	20:50 세계테마기행
07: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재)	12:00 EBS 정오 뉴스	16:00 당동명 유치원(재)	〈영정의 나라 쿠버를 가다〉
07:45 꼬마버스 타요(재)	12:10 연중기획	16:20 원더블즈	21:30 한국기행
08:00 당동명 유치원	〈행복한 교육세상〉	16:30 우당탕탕 아이쿠	〈남한강 천리길〉
08:20 로보가 폴리(재)	13:05 역사채널e	16:45 책과 땅	21: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08:35 방귀대장 뽀빠이	13:10 돌진 슈퍼가정부와 위험한 동네	17:00 방귀대장 뽀빠이(재)	22:45 다문화 고부열전
08:50 코코몽 3	13:40 사이언-지구인 자격평가	17:15 풍선 꼬끼리 발루보	23:35 글로벌 가족정하기
09:05 원더블즈(재)	13:50 따개비 루	17:30 두다다콩	24:05 역사채널e
09:20 풍선 꼬끼리 발루보	14:00 마야의 모험	17:45 로보가 폴리	24:10 EBS스페이스 공감1,2

EBS플러스1

00:00 올림포스 <국어II-일파개념>	12:10 올림포스 <국어II-일파개념>
00:50 <고교 영어독해-junior>	13:05 <고교 영어독해-junior>
01:40 <화통과 통계>	14:00 2016 수능완성 <국어A>
02:30 <기하와 벡터>	14:50 올림포스 <화통과 통계>
03:20 <수학II>	15:40 <기하와 벡터>
04:10 올림포스 평가문제집	16:30 <수학II>
<기하와 벡터>	17:20 올림포스 평가문제집
05:00 뉴탐스런 <화학I>	<기하와 벡터>
06:00 <지구과학I>	18:10 2016 N제 <수학B>
06:40 <세계지리>	19:20 <세계사>
07:30 <법과 정치>	20:00 EBS 스타강사 특강
08:20 2016 수능개념 <윤리주의 영역>	20:50 2016 인터넷 수능
09:10 <이은주의 수학II>	<화법과 작문&독서와 문법 B형>
10:10 2016 수능완성 <영어>	21:50 <문학 B형>
11:00 <수학Ib>	22:30 박복의 이슈를 만나는 경제

EBS플러스2

07:00 2015 공인중개사 시험대비강좌	15:20 만점왕 <과학 3-1>
07:30 경찰직 공무원 시험대비강좌	15:50 <과학 4-1>
08:30 무역역외 1급 시험대비 강좌	16:20 <과학 5-1>
09:00 즐거운 수학 EBS MATH	16:50 <과학 6-1>
09:10 TV 중학 <수학1(하)>	17:20 만점왕 문제풀이 <진과목 6-1>
09:50 <영어1>	18:00 TV 중학 <수학3(하)>
10:30 <도덕2>	18:40 <영어3>
11:10 <수학2(하)>	19:20 필독 중학 국어 <소설>
11:50 <영어2>	20:00 EBS 인문학 특강
12:30 EBS 특강	20:50 EBS 기획시리즈 <영역3>
13:00 데일리 리소형 수학	21:40 EBS UCC 공모 나피디
13:10 등업신곡 <사회1>	22:00 중학 중-기시험 대비 <역사 2>
13:50 <사회2>	22:40 <과학3>
14:30 <역사1>	23:20 필독 <사회2>
15:10 스쿨랜드	24:00 사선에서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9일(음 5월 24일 丙戌)

子	48년생 부담을 무릅쓰고라도 제대로 해야 얻겠다. 60년생 초심을 회복한다면 순탄한 판국을 조성할 수 있다. 72년생 상대의 깊은 마음속을 어찌 다 알 수 있었는가? 84년생 이해 관계에 따라서 서로 의탁하는 성형이다. 행운의 숫자 : 58, 40
丑	49년생 평상시대로만 해 나간다면 결과가 무난할 것이다. 61년생 훌륭한 것을 이룸에는 반드시 각고의 노력이 따르는 법이다. 73년생 마음속에 새겨져 있지 않음이 옳다. 85년생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리라. 행운의 숫자 : 35, 18
寅	38년생 금전상의 행운이 따를 수도 있는 날이다. 50년생 이렇까 저렇까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받아들여도 별 탈이 없다. 62년생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 74년생 신중할 필요가 있다. 86년생 조심하자. 행운의 숫자 : 51, 46
卯	39년생 실제와는 상당한 차이가 보인다. 51년생 길게가 거침없이 펼쳐지리라. 63년생 구우일모의 기회이니 놓치지 않는 것이 낫다. 75년생 회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87년생 존엄을 아껴 써도 하루해가 너무 짧다. 행운의 숫자 : 06, 05
辰	40년생 노파심을 버리고 안심해도 되는 판도이다. 52년생 대체적인 윤곽이 잡히면서 실체를 잡는 길목에 이른다. 64년생 처신을 잘 한다면 따르는 이가 많으리라. 76년생 장남이 꼬끼리 다리 만지는 식이다. 행운의 숫자 : 31, 39
巳	41년생 너무 왕성하면 머지않아 쇠하리라. 53년생 여태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서서히 불거지고 있느니라. 65년생 공존공영의 기반이 성립되는 도량이다. 77년생 연장되거나 보류될 수도 있음을 감안 하자. 행운의 숫자 : 24, 01

午	42년생 부지런함과 정성스러움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성사한다. 54년생 사상누각에 불과한 허무한 것이로다. 66년생 해낼 수 없는 일이니 빨리 포기할수록 이익이다. 78년생 장애물이 사라지면서 뜻한 바를 이루리라. 행운의 숫자 : 04, 16
未	43년생 승산의 여지는 충분하다. 55년생 눈앞의 일에만 급급해 한다면 멀리 다보 볼 수 없겠다. 67년생 조금씩 형편이 나아질 것이니 걱정 말라. 79년생 귀인을 만나거나 귀를 절할 수도 있는 날이다. 행운의 숫자 : 25, 17
申	44년생 거의 비슷한 조건에서 선택하기가 애매할 것이다. 56년생 발단은 가장 가까운 이로부터 비롯될 것임을 명심하라. 68년생 빠른 속도로 행운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80년생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57, 45
酉	45년생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보류한다면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57년생 일장일단이 있어서 확실히 마음을 정하지 못한다. 69년생 별 것이 없으니 평상심을 유지하라. 81년생 길사의 운이 싹트기 시작하는 성국이다. 행운의 숫자 : 47, 111
戌	46년생 일이 의외로 잘 풀리게 되는 길목이로다. 58년생 급격한 변화로 인한 충격이나 피해를 주의 하자. 70년생 마음먹고 있었던 바를 확실히 추진해야 할 때다. 82년생 갈 길이 바쁘니 핵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16, 66
亥	47년생 초심을 잃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성부의 관건이다. 59년생 현실 상황에 따르는 것이 도리이다. 71년생 집착을 버리고 후일을 기약하자. 83년생 다 잡은 고기를 놓치게 수도 있음을 알아야 적다. 행운의 숫자 : 12, 01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



“역시 소녀시대”

청량감 돋보인 새 앨범 ‘파티’ 아시아권 음원차트 1위 휩쓸어

“데뷔 때부터 여자 그룹이 많아져 ‘걸파워’를 보여 드리고 싶다고 말했어요. 오랜 동료인 윌다겔스도 컴백하고 우리와 활동 시기가 겹치는 걸그룹이 많아 반갑고 즐거워요.”(서현)
7일 밤 10시 새 싱글앨범 ‘파티’(PARTY)를 발표하는 소녀시대(사진)가 이날 오후 6시 반 서울 중구 장충동 ‘반안트리 클럽 앤 스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걸그룹 대전의 정점을 찍는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소녀시대의 신보는 지난해 2월 발표한 정규 4집 ‘미스터 미스터’(Mr. Mr.)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지난해 9월 멤버 제시카가 탈퇴한 후 국내에서 8인조로 처음 선보이는 음반이란 점에서 관심이 뜨겁다. 특히 윌러를 써스타, 걸스데이, 에이오에이(AOA) 등의 컴백으로 걸그룹 대전이 펼쳐진 만큼 최정상 걸그룹인 소녀시대의 활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소녀시대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역시 소녀시대란 말을 듣고 싶다. 또 신곡이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노래란 말도 듣고 싶다.”고 강조했다.
태연은 8인 체제로 인한 변화를 묻자 “팬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뽀플 뽀플하고 우리끼리 강해진 건 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준비했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멤버의 연애가 공개된 점은 음반 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멤버들은 오랜만의 컴백인 만큼 설렘과 떨림이 교차하는 듯했다.
서현은 “컴백이 아직 실감 안 난다”며 “며칠 전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 카메라 앞에 있는 것도 적응이 안 되더라. 무대를 향한 열망이 커졌고 다시 연습생이 된 것처럼 준비했다. 실감 안 나고 열렬했지만 자신 있는 음반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싱글에는 청량감을 주는 즐거운 분위기의 여름 팝송인 타이틀곡 ‘파티’와 남녀의 긴장감을 녹인 알앤비(R&B) 곡 ‘체크’(Check) 등 2곡의 신곡이 수록됐다. 이들은 싱글에 이어 ‘라이언 하트’(Lion Heart), ‘유 싱크’(You Think)를 더블 타이틀곡으로 잇달아 발표할 계획이다.
곡으로 한 정규 앨범을 잇달아 발표할 계획이다. 윌러를 ‘파티’와 정규 앨범 타이틀곡 2곡 등 총 3곡으로 활동한다.
윤아는 “한 곡도 놓치지 아까워 다 보여 드리고 싶어 세곡으로 활동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녀시대가 여름에 새 음반을 내는 건 히트곡 ‘소원을 말해봐’ 이후 처음이다.
티파니는 “‘소원을 말해봐’ 때처럼 밝고 에너지 있는 면을 보여 드리고 싶어 이번만큼은 여름 컴백을 욕심냈다. 신나게 파티하는 기분으로 컴백한다”고 말했다.
태국 조사무이에서 찍은 티저 영상에서 수영복을 입은 모습도 화제가 됐다.
윤아는 “여름 활동 곡이어서 분위기에 따라 입은 옷 중 하나가 수영복”이라며 “여름이어서 노출을 해야지만 생각이 없었다. 워낙 소녀 이미지를 많이 보여 드려 이런 작은 변화에도 놀라시는 것 같다”고 웃었다.
이날 오후 8시 야외수영장에서 진행될 쇼케이스는 MC 신동엽의 진행으로 맨 200여 명이 초대된 가운데 열렸다. 소녀시대는 ‘파티’와 ‘체크’ 무대를 처음 선보이고 근황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소녀시대는 10일 KBS 2TV ‘뮤직뱅크’를 시작으로 방송 활동에 나선다.
한편 8일 오전 8시 30분 기준으로 소녀시대의 싱글 타이틀곡 ‘파티’는 지니, 멜론, 엠넷 등 8개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소녀시대는 7일 오후 10시 ‘파티’ 음원을 공개했다.
소녀시대는 홍콩,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등 아시아 7개국 아이튠스 싱글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해 국내 최정상급 걸그룹의 지력을 입증했다. 또 아시아 9개 지역 K팝 싱글차트에서도 1위를 수상하고 있다고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가 전했다.
소녀시대는 이번 싱글에 이어 ‘라이언 하트’(Lion Heart), ‘유 싱크’(You Think)를 더블 타이틀곡으로 한 정규 앨범을 잇달아 발표할 계획이다.

밴드 혁오, ‘무한도전’ 인기 급행열차를 타다

멜론 등 각종 차트 10위권 진입... “위력 새삼 실감했어요”

MBC TV ‘무한도전’이란 열차를 탄 4인조 밴드 혁오(오혁, 임동건, 임현제, 이인우)가 ‘사진’에 대한 대중의 반향이다. ‘무한도전의 신데렐라’라는 말도 나온다.
혁오의 보컬 오혁(22)은 지난 4일 방송된 ‘무한도전 가요제 2015’에서 뛰어난 가창력과 말수 적은 캐릭터로 화제가 됐고 이날부터 혁오의 노래는 멜론 등 각종 차트에서 상승세를 타더니 10위권에 진입했다.



8일 현재도 멜론에서 혁오가 지난 5월 발표한 새 앨범 타이틀곡 ‘와리가리’가 7위, 수록곡 ‘위잉위잉’이 10위, ‘후카’(Hooka)가 12위에 올라 있다.
“‘무한도전’의 위력적인 효과가 ‘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편에 이어 이번에도 증명된 셈이다. 올해 초 인디음악계에서 루키로 입소문이 난 혁오와 지난달 초 인터뷰를 했을 때만 해도 곧 뜰 ‘차세대 루키’란 건 분명했지만 한 달 만에 대중적인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소속사 두루두루amc도 “음원차트 반향에 놀랐다”며 “‘무한도전’의 위력을 새삼 실감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결성된 혁오는 그해 9월 첫 앨범 ‘20’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5월 두 번째 앨범 ‘22’을 선보였다.
두 장의 앨범으로 인디음악계에서는 장기하와얼굴들, 십센치의 뒤를 이을 팀으로 눈도장을 찍었다.



“정치 풍자, 제대로 보여줄 것”

김장훈, 15일 신곡 ‘왓 아 유?’ 발표

가수 김장훈(사진)이 오는 15일 신곡 ‘왓 아 유?’(What are you?)를 발표한다. 8일 소속사 공연세상에 따르면 8개월 만의 신곡인 ‘왓 아 유?’는 현 세태와 정치권에 대한 풍자를 담은 곡이다.
김장훈이 작곡팀 ‘텐조와 타스코’와 함께 작사·작곡·편곡 등 음악 작업에 참여했으며 노랫말에는 그의 메시지가 강하게 담겼다.
김장훈은 “신곡 부제가 ‘디어 피’(dear P)인데 P는 피에로(Pierrot)와 폴리티션(Politician·정치인)을 뜻하는 중의적인 의미다. 노랫말은 피에로를 테마로 썼다”며 “그냥 들으면 지극 시칠을 살아가는 우리 얘기로 들렸지만 정치인을 대입하면 완벽하게 풍자가 될 수 있도록 노랫말에 신경 썼다”고 설명했다.
이 곡의 뮤직비디오는 성원도, 박상우 감독으로 이뤄진 디지털 피디가 연출했다. 국회의사당 의원석에 300명의 피에로가 앉았는 장면 등이 담긴다고 소속사는 전했다.
한편, 김장훈은 3주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피해를 본 지역을 찾아 영세 상인과 전통시장 살리기에 힘쓰고 있다. /연합뉴스